

대구주보

성모 승천 대축일
2016. 8. 15. (다해) 제2012호



코레조, 성모승천(1526~30)
프레스코, 이탈리아 파르마 두오모성당



성모님처럼,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박석재 가톨릭 신부 | 교구 사무처장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1코린 15,20-23)” 오늘 축일의 2독서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을 제대로 기뻐하고 경축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부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성모님은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셔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교회현장 59)” 예수님이야 하느님이시니 부활이 당연하다 쳐도 인간 가운데 이미 부활의 은총을 누리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게 되면 육신이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도 언젠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평화롭고 인간다운 삶이 더 증진되는 세상을 누구나 바라겠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은 점점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희망보다는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오늘입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 보다는 서로 대립하고 불신하며 골만 깊어져가고 이리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걱정스럽고 지구촌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세상의 방관자나 이방인처럼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자처하는 우리가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느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올해는 자비의 특별 희년입니다. 공의회 폐막 50주년을 기념해서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공의회 정신은 한마디로 ‘세상 속으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표현대로라면,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안주하면 안 되며 깨지고 더럽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신음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구 100주년을 지내면서 교구가 채택한 성서구절은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입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이를 보고 지나치는 사제나 레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며 피붙이에게 하듯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교구청 입구에 돌로 새겨두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온갖 고난을 겪어내시고 십자가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도 고락을 같이 하신 성모님. 육신과 영혼이 함께 들어 높여지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신 성모님. 우리도 용기를 내어 멀리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내 몫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찬미받으소서

하느님의 선물인 공동의 집

신중호 분도 신부 | 정평본당 주임

날이 더워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강변을 산책합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하나요? 강이 참 많이 맑아졌지요? 그리고 큰 비가 와도 강이 범람하는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홍수가 나면 제방이 무너지고 수해가 생겼잖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젠 거의 없어진 듯합니다. 강변 어디를 가도 제방이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배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사람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 줄 것처럼 믿고 있지요? 많은 경우에 이미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지금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 개봉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는 이런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에 간섭하면서 이 공동의 집에서 최대한 모든 것을 뽑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은가요?(『찬미받으소서』 106항 참조) 그렇게 환경에서 뽑아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사람을 향해서도 예외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원리에만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윤의 극대화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회칙 109항 참조) “즉각적인 이득을 주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의미가 없다.”(회칙 122항)

라고 여기는 생각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요?

이 공동의 집은 선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느님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원래부터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루카 12,16-21 참조) ‘나’라는 인간 자체도 바로 하느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마음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백주년 38항 참조) 하지만 하느님의 존재를 무시할 때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자리에 앉게 될 테지요. 오만과 자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의 울부짖음”(회칙 117항)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생명부터 우리의 생명, 미래의 생명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 질 수 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힘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형태의 삶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적게 생산하고 적게 소비하는 것도 그러할 것이고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동의 형태로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 것도 하나의 멋진 삶이 되겠지요.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회칙 112~113항 참조) 목적과 의미에 대한 질문은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성모 승천 대축일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 묵시록 12,1)

교회의 달력을 살펴보면 성모님에 관한 축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감명 깊고 깊은 인상을 주는 축일은 바로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이기도 한 이날, 성모님께서서는 장차 우리도 하늘에서 받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며 위로와 희망의 표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그리고 성좌의 고유한 권위에 따라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하신 천주의 모친 마리아께서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으셨다는 교의를 하느님이 계시하신 대로 공언하고 선언하며 분명히 정의하는 바이다.”



프란치스코 보티치니, 성모승천(15C) 런던국립미술관

1950년 11월 1일 비오 12세 교황님은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Munificentissimus Deus)을 발표 하시면서 성모 승천 교의를 교황의 무류성으로 선언 하셨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성모 승천을 ‘몽소 승천’(蒙召昇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느님이시기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승천(Ascension)과는 달리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에 하느님에 의해 ‘올림을 받으심’(Assumption)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비록 성경에는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초대 교회부터 내려오는 믿을 만한 전승(傳承)과 구세사(救世史)에 있어서 성모님의 역할, 성모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성모님의 위치 등으로 받아들여진 신학적 결론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근거를 통해 대두되기 시작한 성모 승천 교의는 성 알베르토(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보나벤투라, 교황 베네딕토 14세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1854년 12월 8일 비오 9세 교황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원죄없는 잉태’를 확정하자 성모님의 육체적인 승천도 교의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수많은 성직자와 신자들의 요청이 쇄도하였고 마침내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성모 승천 교의를 반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는 성모 승천과 관련해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지상 생활을 마치신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으시어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모후로 추대 받으셨다. 이로써 마리아는 다스리는 자들의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을 더욱 완전히 닮게 되셨다.”(교회 59항)고 천명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성모 승천을 성대하게 기념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3~4세기부터 순교자나 성인들을 그들의 사망일에 기념하는 풍습에 부응하여 4세기 중엽의 ‘복되신 동정녀 기념일’이 성모님의 죽음과 승천의 축일로 받아들여진 듯합니다. 교회가 성모 승천을 공적으로 기념한 것은 5세기 초 예루살렘에서 8월 15일을 ‘하느님의 어머니’ 축일로 지내면서부터입니다. 이후 6세기경에는 이 축일의 명칭이 ‘성모 안식 축일(Dormitio)’로 바뀌었습니다. 7세기에 이르러서는 서방 교회로 전해져 성모님을 공경하는 축일로 널리 지내게 되었으며 8세기에는 명칭이 다시 ‘마리아의 승천 축일’로 바뀌면서 날짜도 8월 15일로 확정되고 마리아 축일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4세(847~855) 때는 팔부 축일로 지정되었으며 교황 니콜라오 1세(858~867)는 부활 대축일, 성탄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등과 같이 대축일로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16세기의 ‘로마 성무일도’에 성모 승천 팔부 축일을 삽입했고 1970년 미사 경본 개정에서 성모 승천 축일은 전야 미사가 인정된 유일한 마리아 축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성모 승천 대축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월 25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월 8일)과 함께 교회 전례력에서 성모님을 특별히 기념하는 대축일 가운데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성모님 축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에콰도르, 프랑스, 그리스, 레바논, 이탈리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날을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에서는 성모승천 대축일을 신자들이 반드시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4대 의무 축일 중 하나로 지내고 있습니다. **필문**



귀도 레니, 성모승천(1580)
캔버스 유화, 프랑스 리옹 순수미술관



성모 마리아 처럼

박성규 엘리지오

성모 승천 대축일 전야

▲ 입당송

마리아님, 오늘 천사들의 무리 위에 높이 오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개선하셨으니, 저희 모두 어머니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 제1독서 [1역대 15,3-4.15-16; 16,1-2]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 화답송

- ◎ 일어나소서, 주님, 권능의 궤와 함께 당신 안식처로 드소서.
- 보라, 우리는 에프라타에서 소식을 듣고, 야아르 들에서 그 궤를 찾았노라. 우리 그분 거처로 들어가, 그분 발판 앞에 엎드리세. ◎
-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환호하게 하소서. 당신 종 다윗을 보시어,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
- 주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당신 처소로 삼으셨네. “이곳은 길이 쉴 나의 안식처, 내가 원하였으니 나 여기 머물리라.” ◎

▲ 제2독서 [1코린 15,54L-57]

〈하느님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1,27-28]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는 행복합니다.〉

▲ 영성체송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의 모태는 복되시나이다.

성모 승천 대축일

▲ 입당송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 제1독서 [묵시 11,19ㄱ; 12,1-6ㄱ.10ㄱ.1ㄱ]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둔 여인〉

▲ 화답송

-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 제2독서 [1코린 15,20-27ㄱ]

〈말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39-56]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 영성체송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미 사 안 내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8월 15일(월) 11:00 계산성당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생명평화미사	8월 20일(토) 11:00 성주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8월 15일(월) 11:00 순례자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8월 20일(토) 11:00 성모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18일(목) 10:00 평화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8월 월례미사는 성모 승천 대축일 관계로 없습니다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20일(토) 10:00 월성성당		

대리구 소식

2대리구 교구장 대리

박성대(요한) 신부 은퇴 감사 미사

일시: 8.24(수) 19:3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프란치스코성당)
초청장은 따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화환과 예물은 기도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 피정

향심기도 피정

기간: 1차 10.10(월)~12(수)

2차 10.18(화)~20(목) / 2박 3일

대상: 고요하게 기도하고 싶은 분
피정비: 12만원 / 문의: 평화계곡 피정외집(소울스테이), (010)5332-7587

효령하늘집 피정(개인 휴식을 위한 곳)

개인 피정: 누구나 언제든지

밤기도: 매월 둘째주 (목) 22:00

산내 치유 피정: 매월 셋째주 (화), (수)

시니어 피정: 홀수달 넷째주 (화), (수)

문의: (054)382-0091

Lectio Divina 거룩한 독서 피정

기간: 9.21(수)~25(일) 4박 5일

10.22(토)~29(토) 7박 8일

장소: 연화리 피정의집

문의: (054)973-4835 / (010)3542-4835

교육 | 모집 | 기타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청년MSC 모집

예수마음을 살아갈 이들을 초대합니다.
대상: 40세 이하 남녀청년(미혼·기혼)

다음카페: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

장소: 부산 본원 / 문의: (010)9330-3104

스칼라중창단 모집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발성, 찬양, 전례

대상: 남녀 청년(오디션)

신청: (010)2649-2045

영성아카데미 개강

일상에서의 이나시오 영성수련 피정을 원하시는 분들의 참가를 받습니다.

일정시작: 9.1(목) 10:00~12:00

장소: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본원

문의: (054)335-8915 / (010)3032-8880

장례지도사 무시험국가자격 교육생 모집

야간반(30명): (토) 13:00~19:20

(일) 13:00~21:20 (월, 수) 18:30~22:20

개강: 9.3(토) / 대상: 20세 이상

학력, 남녀 제한 없음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555-4404

24차 외식산업 성공전략 심포지움

일시: 8.16(화) 14:00, 감삼동 강당(무료)

내용: 국내외식산업 위기 돌파구는 없나

대상: 외식업 경영자, 관리자, 창업예정자

주최: 대구가톨릭대 의료보건과학대학원

문의: 850-3177 / www.oesikceo.com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기간: 6.7(화)~9.30(금)

대상: 성경공부를 하고 싶은 분

문의: (031)8017-4239

http://cyberbible.casuwon.or.kr

부산교구 혼인강좌 강사 초빙

지원자격: 가톨릭신자와 심리학 전공자로서 현재 전공분야 직업을 가진 분

신청: family@catb.kr

이력서마감: 9.11(일)

문의: (051)629-8775

일본 가고시마교구가 주관하는 성지순례

출발: 9.25(일), 10.30(일), 11.6(일)

11.21(월), 11.27(일), 12.26(월) 4박 5일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 63만원

내용: 일본 가고시마 주교 만남 및 안수

문의: (070)5110-3449 / (010)3005-9028

since 1999

성모 아이한의원

감기출입/성장(식음부진·수면장애)/아토피/야뇨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사
동국대한의학과 외래교수 **김성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에너타워 4F

곽앤신입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발리)

http://www.ksnose.com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골동품 · 민속품

고가 매입, 문의 환영

문송갤러리 김 대 운 (요셉)

위치 : 건들바위 네거리(무료감정)

☎ (053)474-3050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피 순(마리아)

♥ 교동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종아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유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자인라식 · 렌즈삽입술 · 노인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외래교수 원장 **박중원(소시오)**

☎ (053)626-8881~5

3대를 이어온 경옥고 명가

(주)양령시사람들

◎ 선물용 경옥고 제품 ◎ 공진단
◎ 경옥고(젤류, 환, 차, 팩, 삼프 등)
◎ 홍삼제품 ※교우 특별 할인

양대성(안토니오) 010-3528-8008

☎ 1644-8807, (053)428-8002

www.양령시사람들.com (양령시장 내)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카)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행사 | 모임

제6회 가톨릭 생태포럼
 일시: 9.2(금) 14:00~17:00
 장소: 매일빌딩 8층(중구 서성로20)
 제목: 에밀따께 신부의 왕벚나무 형제들
 주최: 대가대사회적경제대학원
 (사)푸른평화 / 문의: (010)6501-4433

병자들을 위한 치유 세미나
 기간: 9.17(토) 11:00~18(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내용: 미사·강의·면담·고해성사·치유안수
 대상: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회비: 5만원 / 문의: (010)5490-5345

교육 | 모집

부모와 교육자를 위한 성교육 집중3일 연수
 기간: 8.23(화)~25(목) 10: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광호(베네딕토)
 마감: 8.19(금)
 문의: 교구 학교복음화담당, 250-3037

후반기 시니어 평생대학장단 회의
 일시: 9.12(월) 14:00~16: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주제: 시니어평생대학 활성화 방안 모색
 대상: 각 단위 대학장님 및 실무자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요셉발건강화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법
 일시: 매주(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교대역 3번 출구)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대구가톨릭학술원 8월 초청 특강
 일시: 8.25(목) 17:30
 장소: 범어성당 2층 대성당 옆 회의실
 주제: 건강을 위한 웰빙 식생활
 발표자: 최청(영남대 명예 교수)
 문의: 총무, (010)3933-5875

성지안내봉사 교육(한국천주교회사)
 기간: 9.2~12.16(매주 금)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5만원(교재 및 간식비)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6610-6103

앞산밀복카페 9월5일(월) 개강
 (월) 10:30 서양철학: 허찬욱 신부
 (화) 10:30 노자의도덕경: 최성준 신부
 14:30 이태리어: R.Rivera
 (수) 10:30 불어회화: 김화정 선생
 (목) 10:30 불교이야기: 최동석 신부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 동화구연2급, 오카리나,
 수지침, 원어민영어, 필라테스, 발성법,
 가곡성가, 하모니카성가, 왕초보관광영어,

미술심리상담2급 / 신청: 254-6115
가톨릭푸름터 자원봉사자 모집
 미혼모자들을 위한 사랑나눔 기다립니다.
 노력봉사: 환경정리, 아기돌봄 등
 (주1회, 2시간 활동 / VMS 등록)
 물품후원: 산모·신생아용품, 생필품 등
 문의: 764-8537

대가대 평생교육원 2016년 2학기 모집
 학점은행: 사회복지 및 아동학, 음악전공
 보건학 개설(안경, 방사선, 물리치료)
 취미·교양·자격증 및 전문가 양성과정
 음악원: 1:1레슨 / 마감: 8.26(금)
 개강: 8.29(월) / 신청: 660-5554~7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판매가: 5천 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일본성지순례
 우쿠오카, 이라도, 나가사키 (3박 4일)
 ※출발일: 10월 26일, 11월 23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 협 레(유스티노) 흥 미 회(안젤라)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 중 문(파비올라)

우리아이 아플면?
한영한마음 아동병원
 손찬락(라파엘) 병원장/의학박사

 편 일: 여월 9시 ~ 밤 11시
 토 일: 금요일: 여월 9시 ~ 밤 9시
 (주)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동대문로1가길 11-1 (동대문역사문화마을) 1층
 대표전화: 053-253-3399

통합의료진총합
전인병원
 Comprehensive & Integrative Medicine Hospital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진료 일반외과, 혈액종양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의학과, 한방내과
 병원장 손 기 철(체드로 다미아노) 신부
대표전화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개원 30주년
달성피부과
 BF PNT영양치료실/화상·흉터클리닉
 1F 아토피센터/대상포진통증클리닉
 2F 오프토피스킨케어/여드름클리닉
 3F 레이저/보톡스/리프팅 동안센터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민주(레지나)
7호광장 두류역 2번출구 ☎ 566-4333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중 훈 (바오로)
 피부진료 아토피/알레르기/시미귀/티눈/건선/무좀
 피부미용 에르모/홍터/기미/잡티/모공/보톡스/필러/미반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성담역 3번출구 T.053) 651-8800